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30호

2023 밀라노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러시아 선수와 악수 못해”...우크라 펜싱 스타, 세계선수권 실격

양정빈 뉴시스기자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신기록 8개’ 수영 경영대표팀, 세계선수권 마치고 귀국

김영성 SBS NEWS기자

[SBS 끝까지 판다 단독보도]

금메달리스트도 피해자...배후에는 체조계 실세?

유슈환, 화강윤, 권지윤 SBS NEWS 기자

대한항공,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대한항공, 장애인 컬링·수영·탁구선수 17명 신규 채용

임성호 연합뉴스기자

안산 그리너스 FC, 선수 입단 비리

검찰, ‘선수 입단 비리’ 안산 그리너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송재인 YTN기자

스모계 인권 유린 실태 폭로

“곰팡이 핀 고기까지 먹었다”...日 스모 선수, 스모계 인권 침해 고발

최윤정 세계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러시아 선수와 악수 못해”... 우크라 펜싱 스타, 세계선수권 실격

우크라이나 선수가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 선수와의 악수를 거부해 실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AFP통신 등은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붙어 우크라이나 선수가 승리했지만 러시아 선수의 악수 요청을 거부해 실격 처리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64강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올하 하를란 선수와 러시아 출신 선수 안나 스미르노바가 대결을 펼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금지 등 제재를 받은 상태라 스미르노바는 중립국 소속의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하를란은 스미르노바를 15대 7로 꺾었다. 경기를 마친 뒤 스미르노바가 하를란 쪽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으나 하를란은 이를 거부하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세이버(펜싱용 검)을 내밀었다. 이에 스미르노바는 45분간 항의했고 결국 하를란은 실격처리 됐다.

국제펜싱연맹(FIE) 경기 규정에는 경기 결과가 나온 뒤 두 선수가 악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를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은 무척 힘들면서도 중요한 날이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선수와 악수하고 싶지 않았고, 그 마음 그대로 행동했다" 며 "나를 실격시키려 한다고 들었을 때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는 "에마누엘 카치아다키스 FIE 회장이 악수대신 검을 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절대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격된 하를란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만 4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는 여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탠 우크라이나 펜싱의 간판이다.



‘한국 신기록 8개’ 수영 경영 대표팀, 세계선수권 마치고 귀국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따내고, 한국 신기록을 8개가 작성한 한국 수영 경영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등 대표 선수 21명은 오늘(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은 14일부터 30일까지 열렸고, 경영 종목은 23일부터 치렀는데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 44초 42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1분 44초 47로 은메달을 따낸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도 시상대에 섰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 2회 연속 메달은 박태환도 달성하지 못한 '한국 최초 기록'입니다. 박태환은 2007년 멜버른 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과 자유형 200m 동메달을 차지했고, 2009년 로마 대회에서는 노메달에 그친 뒤, 2011년 상하이 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박태환에 이어 한국 수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황선우는 박태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 이상을 얻은 한국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또 이호준은 황선우와 함께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진출해 6위(1분 46초 04)에 올랐고 김우민은 남자 자유형 400m 예선(3분 44초 50)과 결승(3분 43초 92)에서 잇달아 개인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톱5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3분 45초 64로 6위를 했던 김우민은 1년 사이에 기록을 1초 72나 단축하며, 세계선수권 개인 최고 순위도 5위로 한 계단 올렸습니다.

김우민은 남자 자유형 800m에서는 7분 47초 69로 박태환이 2012년 8월 런던 올림픽에서 세운 종전 한국 기록 7분 49초 93을 2초 24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남자 평영 100m에서도 최동열이 59초 59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수영 팬들은 황선우와 '황금세대'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황선우, 이호준, 김우민은 양재훈과 함께 출전한 남자 계영 800m에서는 예선(7분 06초 82)과 결승(7분 04초 07)에서 잇달아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며 6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유찬, 양재훈, 허연경, 정소은이 작성한 혼성 계영 400m 한국 신기록(3분 27초 99)과 이은지, 최동열, 김영범, 허연경이 합작한 혼성 혼계영 400m 한국 신기록(3분 47초 09)도 한국 수영의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황선우는 대회 마지막 날 이주호, 최동열, 김영범과 함께 남자 혼계영 400m에서 3분 34초 25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수영 경영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강훈련에 돌입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 경영은 2010년 광저우 대회(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뛰어넘어, 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메달에 도전합니다.

[단독] 금메달리스트도 피해자... 배후에는 체조계 실세?

한국체육대학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체육 특성화 국립대학으로 그동안 메달리스트를 비롯해 많은 선수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체대 출신의 체조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면 계약금의 10%를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행과 전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학교 측이 선수들의 돈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의 단독 보도,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한국체육대 체조 전공 학생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입단하는 선수들 대부분은 계약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각자의 능력, 또 입단하는 팀의 사정에 따라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어린 선수들이 눈물과 땀을 쏟으며 노력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돈입니다. 저희 '끝까지판다'팀에 들어온 제보는 이 소중한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

[A 씨/한체대 출신 선수 : 받은 계약금의 10%를 이제 학교에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냈죠. 계좌 이체로.]

[B 씨/한체대 출신 선수 : 계약금 10%는 대학교에다가 내야 된다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했으면 안 냈을 것 같은데...]

실업팀 입단 계약금 가운데 10%가량을 학교 측이 반강제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C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이미 위에 선배들부터 쪽 그래와서,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형들이 낸다고 할 때는 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내야 된다고 하니 이제 아까웠죠. 불만 있는데, 불만 있다고 해서 뭐 가서 따지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국가대표, 국제 대회 금메달리스트도 포함됐고, 수수 기간은 확인된 것만 최근까지 최소 10년에 달합니다.

[D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우리가 이걸 왜 내야 되지?'라는 게 많았었죠. 우리가 고생해서 받은 돈인데... (그 당시) 친구 한 명이 이걸 안 내면 네 인생이 고꾸라질 수도 있는데 (안 내는 게) 가능하겠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게 관례였던 거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수십만 원을 받아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E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원래 10%로 돼 있는데 제가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수십만 원만 냈어요.]

한체대 체조부 입학생은 매해 7명 정도, 많게는 한 해 3천만 원 이상 걷기도 해 수수 기간을 감안하면 총액은 최소 억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왜 받아 갔는지 체조부 측에 묻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금 문화"라며 "비인기 종목의 취약한 재정 지원 탓에 40년 전부터 시작된 기부 관행"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체대 체조부 관계자 :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해명이 사실일까. 끝까지판다팀이 입금 과정을 따져봤더니, 독촉 전화까지 있었고,

[D 씨/한체대 출신 선수 : 전화로 계속 아직 입금 안 됐냐, 어떻게 됐냐 왜 너만 아직 안 됐냐, 이런 식으로...] '학교발전기금 공식 계좌'가 있는데도, 조교 명의 또는 재학생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F 씨/한체대 출신 선수 : (학교 계좌로 입금하셨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선수, (재)학생, 그 친구 계좌로 (보내줬어요).]

[G 씨/한체대 출신 선수 : (10%를) 000 조교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부모님 통장에 보내드렸죠.]

자발적 납부다, 오랜 전통이라는 말은 무색해졌고,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점에서 사용처에 대한 의혹만 커졌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1510311?OutUrl=naver>

대한항공, 장애인 컬링·수영·탁구선수 17명 신규 채용

대한항공[003490]은 컬링·수영·탁구 등 3개 종목에서 장애인 운동선수 17명을 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선수는 유망주부터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까지 다양하다. 모두 대한항공 소속 구성원으로 정식 채용돼 훈련과 대회 참가 등 선수 생활을 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채용된 선수들에게 훈련 중 필요한 종목별 용품을 제공하고, 훈련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또 전국대회 입상 포상금, 육아·보육비, 항공권 등 입체적인 복리후생도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면접 등을 거쳐 장애인 운동선수를 선발했다.

전날 서울 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열린 선수 입사 환영식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장과 이충희 대한항공 스포츠단 사무국장,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이장호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선수·보호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채용된 청각장애인 남자컬링 국가대표팀 소속 윤순영 선수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 내년 2월 데플림픽(청각장애인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대한항공 인사전략팀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YTN

검찰, '선수 입단 비리' 안산 그리너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프로축구 입단의 대가로 뒷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안산 그리너스 FC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어제(31일) 프로축구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전직 대표 이 모 씨와 전직 스카우트 담당자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안산 FC에 선수 두 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중개인 최 모 씨에게서 현금과 고급 시계 등 2천7백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략강화팀장으로서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던 배 씨 역시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최 씨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안산 FC 감독의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다른 안산 FC 관계자들에게도 대가성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곰팡이 핀 고기까지 먹었다” 曰 스모 선수, 스모계 인권 침해 고발

일본의 전 스모선수가 스모계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지난달 31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모선수 출신 야나기하라 다이스케(25)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모계에서 전통 문화라는 명목 하에 인권을 무시하는 관행이 묵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모계에선) 젊은 역사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 이같은 스모 협회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야나기하라는 2021년 1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소속 도장을 통해 대회 휴장을 건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강을 생각해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나기하라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우려가 있어 도장을 통해 휴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스모협회가 거부하며 사실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회에 출전할 것인지, 혹은 은퇴할 것인지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3월 이와 관련해 일본 스모협회와 소속 도장을 상대로 415만엔(약 3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야나기하라는 소속 도장의 인권 침해도 지적했다. 그는 “훈련 중 곰팡이가 핀 냉동 고기를 자주 먹었다”며 2017년 어머니에게 보냈던 고기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 속 고기의 가공일자는 2011년 11월, 유통기한은 2012년 1월로 적혀있었다. 당시 그가 어머니에게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하자,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도장 측에서 선수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도장 벽에 붙어 있던 벽보들을 증거로 보여줬다. 벽보들에는 ‘각 거실에 과자나 주스가 놓여 있으면, 그 시점에 거실에 있는 전원 벌금 2만엔(약 17만9400원)’, ‘방 밖에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벌금 3만엔(약 26만 9200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야나기하라는 “스모계에서 제대로 아이들이 스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협회 측은 이러한 의혹에 전면 부인했다. 상한 고기 사진에 대해선 “버릴 때 찍은 사진으로, 먹을 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 스포츠 소식

'피지컬:100' 제작진의 체대 서바이벌 '대학체전', 선수단 공개 모집 시작

<https://www.news1.kr/articles/5126962>

조기성,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 남자 평영 50m 우승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068700007?input=1195m>

광주FC, 사설 토토 참여 의혹 프로선수와 계약 해지

<https://www.news1.kr/articles/5127543>

'체육인 인권보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오늘 개소 1주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8_0002393912&cID=14001&pID=14000

우즈, PGA 투어 정책이사회 합류...선수들 영향력 커질 듯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2397&pink=ORI&cooper=NAVER&p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신세계푸드, '추린지' 캠페인 진행... "유소년 야구선수 육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02_0002399024&cID=13001&pID=13000

'5명 중 1명 인권침해' 제주, 장애인 스포츠인권 조례 추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7_0002393443&cID=10813&pID=10800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대상 '클린스포츠교육'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85>

스포츠윤리센터, 롯데 대상 2차 스포츠 윤리 교육 실시

<http://www.stoo.com/article.php?aid=8832977814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